

신임교원 58명 채용

서울 47명, 수원11명 공채 통해 모집

95학년도 신임교원 채용에서 총 58명의 신임 교원이 확정 임명되었다. (신임교원 프로파일 9면) 본교 개교 이래 한 학기에 58명의 교수가 채용되는 이번이 처음인데, 전임공채를 통해 모집했다. 이번이 확정된 인원은 전임교원 29명(서울: 22명, 수원: 7명), 강의교원 22명(서울: 19명, 수원: 3명), 연구교원 7명(서울: 7명) 등이다. 그러나 수원 캠퍼스의 경우 1학기 예정 인원이었던 27명에 훨씬 못미치는 11명만을 채용한다. 학원유, 서영호, 송상호, 최다은은 새로 임용된 교수들

의 명단이다. 【서울캠퍼스】 ▲사학과: 조인성, 차경애, 이환호 ▲철학과: 최정식 ▲생물학과: 정영석 ▲지리학과: 윤순숙 ▲영어교육과: 조세경, Lynn Coville Jean ▲아동·주거학과: 주서령 ▲식물영양학과: 오세영 ▲의학박사: 조영숙 ▲한의학박사: 김남일 ▲체육학과: 장명복, 손홍기, 안광림 ▲무용과: 안병주, 윤미라 ▲법학과: 최승환 ▲행정학과: 권기진 ▲간접학파: 이우현, 문희화 ▲경영학과: 박원우, 서영호, 송상호 ▲회계학과: 김진경, 이준영 ▲국어

PC통신 이용한 수업 예정

사회대 황승연교수 국내 최초로

사회학과대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는 이번이 새로 신설된 과목인 '정보화사회론'을 PC통신을 이용해 강의한다. PC통신망인 천리안의 경제대중토론회를 통해 강의하는 이 과목은 수강신청기간 첫날 마감되는 등 재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 강과는 국내 처음으로 PC통신을 이용하기 때문

연구계약실적 대폭 증가

수원, 우주과 이동훈교수와 9명

수원캠퍼스 연구처의 발표에 따르면 94년 연구계약실적이 93년도에 비해 67.25% 증가하였다. 연구비 계약, 임금실적 결과를 93년과 비교해보면 ▲항공: 93년 실적(과제수), 94년 실적(과제수): ▲제약학: 56943명634344원(344과제) 33945천411천원(226과제)(전년대비 67.25% 증가) ▲입금액: 27억 7천8백56만4천원, 17억9천4백 94만7천원(전년대비 54.8% 증가)로 92년대비 93년 계약금액 증가율인 65.9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연구과제 계약실적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학술진흥재단에서 확정된 연구실적수와 계약액이다.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우주과학과, 이동훈, 저위도 지구근접 우주공간에서의 자기유체파동 연구 ▲우주과학과, 김진경, 혜성SL9과 목성 충돌 후 자기권, 이은숙, 고층대기의

박찬욱, 차동욱, 김민용, 박재용, 박성수 ▲국제관계학과: 박수현 ▲생물공학과: 최동준 ▲토목공학과: 황의성 ▲불어문학과: Carole geneix ▲영어문학과: 田坂正則 ▲서반아어과: Areta Ayuso

'학점표준화제도' 시행

다. 이 제도는 담당 교수들의 학점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절대평가로 인해 동일한 교과목에 대한 강좌별 학점분포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95학년도 입학식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의 오후 2시에 각각 서울과 수원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거행된 입학식 현장. (앞줄은 기자)

교육재정확보에 주력할 터

수원은 3월이후 정기적 협상

올해 등록금 협상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교육재정 확보에 초점을 맞출것으로 뜻을 모아 학교측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 학원회차추진위원회(학자추)는 이번 협상의 목표를 ▲학교와 총학생회 공동명의로 국가보조금 확보일자리 광고부담 ▲학교재정의 등록금의 존을 감소 ▲재단전입금의 확충 ▲학생들의 예산편성 참여에 보장하기 위한 임시특별기구의 구성 ▲재단의 예산결산 공개 ▲공간조정위원회(가)에 학생들의 참여 보장 등으로 결정하고 협상을 일관하고 있다.

원 전반기 운영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3자 협의체 구성, 재단전입금의 대폭적인 확충 등을 학교측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 또한 학자추장 이상진(항공) 4)군은 "서울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에 비해 학원이 낮은 수인 장학금의 인상과 인문·사회 계열의 실험실비의 확정발표 ▲복지장학생 및 복지근로장학생 모집 ▲계시관사 등에 관한 원칙 설정 ▲학생수협 내부 ▲자라기 가격 인하

공생계를 주장하고 있다. 수원 학부위 장학금 모집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는 교통문제, 복지 장학금모집 등 일련의 사업을 확정지을 시점에 들어갔다. 이번엔 확정된 주요 사업은 ▲1학기 스콜버스 운행시간 확정발표 ▲복지장학생 및 복지근로장학생 모집 ▲계시관사 등에 관한 원칙 설정 ▲학생수협 내부 ▲자라기 가격 인하

누구를 위한 줄다리기인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립하는 양측은 각자의 의를 갖고 자신의 주장만을 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줄다리기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캠퍼스 학생회 2층의 공간사용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아직까지 공간이 폐쇄된 상태에 있어 3층에 동아리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작년부터 이 공간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 왔다. 일단은 학생회기 3층을 사용하고 4층에서 8층까지의 동아리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2층에 위치한 구 학생 식당은 역사신문사와 고학원집결

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학생회에서는 학생회를 전제 재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조정지침은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과 사물보관소를 분리 설치하여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공간을 용하지 못하게 방치되고 나갔다고, 동아리 활동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한다는 것이다. 작년 10월말 복지편이 완공에 따라 학생회관에 있던 학생식당, 이발소, 문구점, 대점, 안경점들은 제자리를 잡았다. 또한 이전에 4층에 있던 학생생활연구소나 여학생 휴게실도 1층으로 이전되어 새롭게 단장한 셈이다. ▼대학에 있는 3층은 세대의 출발과 깊은 의미를 갖는다. 출생이 배움되고 그 뿌리를 신임자들이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긴 방랑기간 동안 줄다리기를 하느라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나갔다. 이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돌아와 있는 풍경이라 한다. 우리학교 학생회관도 빠른 시일내 그런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박은기 기자)

수원, 1교시 강의시간 9시로

홍보부족으로 대량 지각사태

변경된 학사일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개강 첫날부터 학생들의 불만을 겪었다. 수원캠퍼스는 이번 학기부터 1교시를 30분 앞당긴 9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량의 학생이 이를 모르 채 등교, 대부분 학생이 지각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강당과 수원 스콜바스의 배차간도 첫차 시간만 앞당겨졌을 뿐이어서 학생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 대부분이 원거지에서 통학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학주보 44기 수습기자 모집

오는 15일 원서마감

전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의 선도를 가는 대학주보가 현실과 역사를 가르쳐 날카로운 필봉을 드높인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서울·수원캠퍼스 10명
▲모집분야: 취재편집, 사진부, 연(화)
▲지원자격: 우리학교 1학년생
▲선발방법:
①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3월6일부터 3월15일까지
② 전형일시 및 장소:
③ 서울캠퍼스: 3월15일 오후5시 서울캠퍼스 편집실
④ 수원캠퍼스: 3월16일 오후5시 수원캠퍼스 편집실
⑤ 전형방법: 면접
⑥ 제출서류: 응시원서(필수), 자기소개서, 학적증명서,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사 편집실
⑦ 문의: 961-0085(서울), 0331-280-2056(수원)

—대학주보사—

꿈, 희망, 미래.....

첨단 전력기술로 열어갑니다.

공과 희망의 지혜가... 미래는 첨단기술로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술연구원에서는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차세대 석탄화력기술, 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 미래의 대대에너지 및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꿈과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전력은 미래를 앞당기는 첨단전력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전력사업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사회발전의 동력을 연구개발 투자로 실현합니다.”
한국전력, 사회발전의 동력을 연구개발 투자로 실현합니다. 한국전력, 사회발전의 동력을 연구개발 투자로 실현합니다.